



신세대 300B 싱글 앰프의 향연

Trafomatic Audio Experience Two

글 김남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팀이 동유럽의 강호인 세르비아 팀과 평가전을 가진 바가 있다. 밤늦은 시간대였지만 끝까지 중계방송을 지켜봤는데, 190cm가 넘는 장신의 선수들이 뛰어난 개인기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작하자마자 우리 팀은 찢찢매더니 몇 분도 되지 않아 한 골을 내주고 말았다. 요행이 더 이상의 추가 골은 내주지 않았지만, 몇 골을 더 내줬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주전 멤버가 상당수 빠진 상태였는데도 그런 실력이라서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이번 경기를 보고 세르비아가 상당한 대국인줄 알았으나, 자료를 뒤져보니 예상외로 우리나라보다 1만km² 정도가 작은

면적(88,361km²)에, 인구 역시 900만도 안되니 놀랍다. 그런 소국에서 어떻게 그런 선수들이 나온단 말인가.

세르비아는 1992년에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후, 몬테네그로와 함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일부였다. 그러다가 그 후 분리되어 2003년도부터는 몬테네그로와 일종의 연방제 형태로 묶여져 있었지만, 현재는 몬테네그로가 그 연방에서 독립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소 기록이 많은 국가다. 그래도 농업이 발달하고, 광물자원이 풍부한데다가 공작기계, 자동차, 전기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 이쯤 되니 인구가 850만밖에 안 되도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유럽의 강소국으로 분류가 된다.

트라포매틱이라는 회사는 바로 그 세르비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트랜스류를 만드는 전문 업체였다. 업체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유럽 지역의 진공관 앰프 붐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트랜스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오디오 제작에도 진출하게 되었고, 그동안 갈고 닦아 왔던 트랜스 제작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제품을 선보였다. 그 곳에서 나온 제품들은 수차례 유럽의 각종 오디오 쇼나 오디오 잡지 등에서 수상을 거듭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수입원인 캄피아에서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신진 메이커를 수소문하다가 유럽의 잡지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진공관 전문 업체인 동사를 알게 되었고, 한동안 뒷조사(?)를 해본 결과 딜러들의 평가

가 상위권에 들어 있다는 데 힘을 얻어, 동사의 제품들 중 우선 가장 평판이 좋은 본 제품을 들여왔다고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 등과 전통, 소비자들의 평가, 전문 업계의 평가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세르비아라는 낯선 이름의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과연 수입상의 결론에 동조하고 싶어진다.

수입 제품 치고는 가격도 어지간한데다가, 우선 보자마자 외형에서 풍기는 그 세련미가 아주 좋은 것이다. 전문 트랜스 업체답게 파워 부분은 대형으로, 이만하면 300B 앰프의 전원으로는 과분할 정도의 대용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외형만으로도 보인다.

현재는 300B를 사용한 싱글 앰프가 흔하다 못해 과잉 생산의 기미까지 보이는데, 요즘의 추세는 진공관 앰프가 곧 300B라는 등식으로 굳어지는 시점으로까지 생각이 된다. 진공관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이 시점에서는 300B 앰프만으로서도 선택의 폭이 자유로워졌고, 또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경쟁하기 어려워져 소비자들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해졌다. 그런 것은 행복한 고민 축에 속한다. 고가의 분리형이 아니라 인터앰프만으로서도 수준급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이 앰프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의 대표이자 엔지니어인 'Sasa Cokić'이라는 장인은 유럽에서도 진공관 전문가로 명망이 높다고 하는데, 원래 동구권은 전통적으로 진공관의 고장이었다. 전후에도 시설이나 기술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인접 체코에서만 해도 크론질라라는 걸출한 진공관 앰프가 생산되기도 한다.

채널당 8W의 전통적인 출력을 갖추고 있는 이 제품은 트랜스에 자신들의 제작 기법인 더블 C 코어를 사용하고, 정류관으로 5U4G, 초단관에 6SN7을 채널별로 사용하는 정통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고가인 문도르프의 콘덴서, 알프스 볼륨 등의 정평 있는 부품 등으로 무장한 이 제품은 8W 출력에 알맞게 스피커 감도 92dB 이상의 제품과 매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호사가들은 실질적으로 음악을 듣는 데는 실내에서 2~3W 출력만으로 넉넉하다는 주장을 펼쳐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8W 출력으로는 어떤 스피커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다소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믿고 300B 앰프로 3웨이 등의 저감도 스피커를 올리다가 결국 실패해 버리는 사례를 상당히 보았다. 그런 이론은 굴리는 가니까 자전거에도 쌀가마니 2개쯤은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단순히 92dB이라는 수치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4Ω에 92dB의 경우 A급 40W 출력도 부족하다. 80W가 되니 비로소 짝 찬 소리가 나와 주는 것을 체험한 바가 있고, 시청기로 매칭한 엘락 스피커는 89dB인데도 충분히 컨트롤 되었다. 앰프의 출력 수치는 단순히 자신들의 측정 기준에 의한 전기용량의 표시일 뿐, 스피커와의 대응력은 상관치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진공관은 기준이 몇 W이니까 하는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본



시청기처럼 92dB 이상의 스피커가 좋을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트랜스 쪽에서 전압의 수치를 낮추면서 소리의 질에 더 중점을 둔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 제품은 확실히 기존의 300B 앰프의 사운드와도 좀 다르다. 근래의 300B 제품들이 그간의 300B 앰프 사운드가 지녔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300B에는 원래 없었던 청량감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리의 색깔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비발디 사계 중 봄 서주에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두드러진다. 놀랍게 깨끗하고 단정하다. 이러한 현의 합주만으로는 이 제품이 300B가 아니라 마치 최고의 반도체 앰프인 것처럼 들린다. 다소 평퍼짐한 것이 종래 300B였다면 이 제품은 뼈대가 깨끗하게 세워지고, 음악의 핵심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성악의 발생도 명확해지는 것이다.

안네 소피 무터의 타이스의 명상 서주 부분도 그렇다. 바이올린의 독주에서 현의 우아한 음색, 그리고 실체감이 아주 뛰어나게 재생된다. 리스트의 라캄파넬라에서 피아노는 투명도가 높고 결백미까지도 연상이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피아노가 다소 경직되는 맛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금관 밴드의 연주인 그렌 밀러 악단의 'In The Mood'는 그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연주가 감탄불급이고, 엘리 아멜링이 부르는 극치의 순간은 혀의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다. 놀라운 묘사력이다. 300B의 신경향, 빈티지가 아닌 신세대의 300B 앰프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이 제품을 꼽을 수 있겠다. **A**



수입원 : 캄피아 (02)717-4274

- 가격 : 600만원
- 사용 진공관 : 6SN7(2), 300B(2), 5U4G(1)
- 실효 출력 : 8W
- 동작 클래스 : A클래스
- THD : 0.8% 최대
- 대역 : 10Hz~45kHz(-1dB, -3dB)
- 입력 임피던스 : 100kΩ
- 입력 감도 : 0.5V
- 크기(WHD) : 43×20×30cm
- 무게 : 20kg